

창립 32주년 기념 단합대회 열려



5월 31일(수) 오전 11시 MBC 양주문화동산에서 사우회 창립 32주년 기념 단합대회가 열렸다. 3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에는 175명의 회원과 박성제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본부, 의료요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고창근(ANN) 회원의 사회로 국기에 대한 경례에 이어 애국가 제창, 작고하신 방송인에 대한 묵념, MBC 社歌 제창 순으로 기념식을 마친 뒤 단체 사진 촬영 시간을 가졌다.

장명호 사우회장은 “3년 만의 만남이라 더욱 반갑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 걱정은 좀 되지만 서로 조심하면서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준 MBC 임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

사장에 참석해주신 박성제 사장과 의료 관계자, 식당 요원들, 현장에서 수고해주신 경영본부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제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배님들이 만들어주신 바탕이 저력이 돼 회사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모든 면에서 1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선배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행사에도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차인태 전 사우회장과 노시창(91세, 전주) 회원이 건배를 제안했고 회원들은 큰소리로 화답했다. 사우회원들은 푸짐한 포천 이동갈비를 제공해준 MBC에 고마운 인사를 전하며 맛있는 식사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단합대회 관련한 사진은 2면에)

발전기금을 보내주신 분들(3월 15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 | | |
|------------------------|----------------------|
| ▶차인태(前 사우회장) 300만원(2회) | ▶장명호(사우회장) 200만원(2회) |
| ▶박성제(MBC사장) 100만원(3회) | ▶김승한(보도) 100만원 |
| ▶김지현(업무) 50만원(3회) | ▶윤길용(편제) 50만원 |
| ▶하동근(보도) 50만원(2회) | ▶차영목(관리) 30만원 |
| ▶신승철(이사) 30만원 | ▶이은용(기술) 20만원 |
| ▶홍환식(기술) 20만원 | ▶손목현(감사) 20만원 |
| ▶봉현숙(편제) 20만원(2회) | ▶김준원(기술) 10만원 |
| ▶이성호(편제) 10만원 | ▶이완수(대구) 10만원(3회) |
| ▶김점용(편제) 7만원 | |



차인태



장명호



박성제



김승한



김지현



윤길용



하동근



차영목



신승철



이은용



봉현숙



김준원



이성호



이완수



김점용



홍환식



손목현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



MBC 충북



3년 만의 단합대회, 날씨도 화창했다,



장명호 회장

사우회 창립 기념일은 원래 5월 18일이라서 단합대회도 해마다 그 무렵에 해왔었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당국의 대응조치를 감안해 31일로 늦춰 시행하게 됐다. 원활한 대회를 위해 사무처는 한 달 전부터 치밀한 기획과 거듭된 점검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했다.



박성제 사장



사회 고창근

3년 전 단합대회장으로 사용했던 솔밭 그늘이 폐쇄된 탓에 대회 장소를 바꿔 연수원 앞 소운동장에 텐트를 쳤다. 행사 보름 전에 사우회장과 상근 부회장, 사무처장 일행은 포천을 방문해 직접 음식의 질과 서비스를 평가하고 '수중궁갈 비평가'를 선정했다. 31일 아침에는 회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4대의 버스를 지역별로 배치해 차질없는 행사 진행을 도모했다.

흐렸던 전날에 비해 행사 당일엔 화창한 날씨에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 야외행사에는 최적의 분위기였다. 일부 회원들은 MBC에서 온 의료진에게 혈당과 혈압을 점검 받았다. 김판영 경영본

부장을 비롯한 MBC 경영본부 소속 후배들의 헌신적인 지원에 힘입어 행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방역상태가 진행 중이라 마스크를 벗지 않는 등 매사에 조심하는 분위기였지만 젊은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들의 만남은 화기애애했다. 김세중, 노시창 씨 등 9순의 회원들과 최근에 사우회에 가입한 한영훈, 김영철 씨 등 60대 회원이 어울려 술잔을 나누고 환담을 하는 모습은 근래에 보기 드문 흐뭇한 장면이었다. 세월의 변화에 따라 문화동산

의 풍경도 달라져 모두의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는 아늑하고 깔끔한 연수원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젊은 시절 각종 세미나, 연수, 워크숍 등으로 밤낮을 지냈던 기억들은 모두에게 생생하게 남아있어 공동 화제에 올랐다. 오후 1시가 지나면서 즐거운 식사 자리가 마무리됐고 사무처가 마련한 기념품을 받은 회원들은 다음 모임을 기약하며 뽀뽀하며 헤어져 귀가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회/원/동/정



▶이원하(기술)

3월 29일 전주 이씨 광평대군(세종대왕 아드님)파종회 이사장에 연임됐다. 광평대군파 종친회원은 전국에 6만 여명이 있다.



▶허연호(보도)

4월 12일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선임됐다. 임기는 2024년 8월까지. 허 회장은 iMBC 사장, 부산MBC 사장 등을 역임했다.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신석화(기술)

1985년 기술국 입사. 중계부, 라디오 기술부, 보도기술부 등에서 근무. 2021년 퇴직.



이대호(편집)

1994년 라디오PD 입사. 2021년 퇴직. 유튜브 채널인 <DH엔터테인먼트> 운영 중.



정명모(기술)

1999년 기술국 입사. 중계부에서 헬리콥터 전담. 2021년 퇴직. 현 (주)UIHEJET 근무.



이순조(기술)

1985년 기술국 입사. 보도기술부, 제작기술부, TV중계부 등 근무. 2021년 정년퇴직.



김종민(편집)

1986년 라디오PD 입사. 영화부장, 해외사업부장, 시청자부장 등 역임. 2018년 퇴직.



〈사무처 소식〉

노영혜 사무과장이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6월 1일자)

알아두면 도움되는 사우회 협력업체

〈세란병원〉

▶종합검진, 성형/피부 시술 등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1번 출구
▶예약 전화 1577-0196

〈중앙추모공원〉

▶납골당, 수목장 등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전화 1577-5869

〈JC빛소망 안과〉

▶백내장 수술, 시력 교정 등
▶여의도 맨하탄빌딩 6층
▶예약 전화 1566-6644

〈비비드플라워〉

*화환, 조화, 화분
*상암동 MBC구내
*김은주(010-4220-1203)

〈C&G라이프〉

▶상조관련 서비스, 후불제
▶박성준 대표(010-8761-6643)
▶전화 1544-4744

*더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 (722-7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비와 발전기금을 보낼 계좌번호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경조사항

팔순: 박진홍(편제) 43.6.6 김종수(편제) 43.6.10 이상원(대구) 43.6.19
최선규(편제) 43.6.20 김삼량(관리) 43.6.21 은정기(관리) 43.7.3
고규균(기술) 43.7.7 나명수(관리) 43.7.11 김정명(보도) 43.7.15
김우룡(편제) 43.7.18
고희: 정동영(보도) 53.6.17 오준상(기술) 53.6.27 김영철(편제) 53.6.28
박정근(편제) 53.6.30 최순근(편제) 53.7.7 정철영(보도) 53.7.10
반주원(ANN) 53.7.13 이세용(관리) 53.7.25 박민정(ANN) 53.7.31
회갑: 정명모(기술) 62.7.8 양진면(편제) 62.7.27
결혼: 김철진(편제)아들 3.19 염영수(편제)아들 4.9 김동환(기술)아들 4.9
이은용(기술)아들 4.9 곽재석(기술)아들 4.16 김승한(보도)아들 4.16
정각종(기술)아들 4.16 최영달(편제) 딸 4.24 이호영(보도) 딸 5.14
윤재민(편제) 아들 5.28 김윤섭(기술) 아들 5.28
부음: 이태섭(관리) 장인상 3.9 우경민(보도) 모친상 3.8
김동오(업무) 배우자상 3.13 한명석(편제) 모친상 3.14
조상휘(보도) 장인상 3.15 양성호(보도) 모친상 3.16
정보균(관리) 장모상 3.23 신동석(관리) 장모상 3.23
봉현숙(편제) 모친/김재형(관리) 장모상 3.25
이상근(기술) 장모상 3.25 조승필(관리) 모친상 3.26
윤길용(편제) 모친상 3.31 차인태(ANN) 모친상 4.1
차영목(관리) 부친상 4.2 문기영(관리) 장인상 4.2
김순단(관리) 시모상 4.2 최영호(편제) 장인상 4.3
류시준(기술) 모친상 4.4 최정숙(편제) 배우자상 4.8
이명기(편제) 부친상 4.10 류상철(편제) 장인상 4.14
김준원(기술) 모친상 4.15 전춘옥(관리) 모친상 4.19
김환균(편제) 장모상 4.22 윤재근(보도) 모친상 4.26
이상림(전주) 배우자상 4.30 박지희(편제) 부친상 5.2
임병길(보도) 모친상 5.8 정호준(기술) 부친상 5.9
박유명(관리) 부친상 5.30

연회비

평생회비: 이순조
2021년: 김기도 최영복
2022년: 강진택 고석만 고창근 권태규 김규수 김상균 김상호 김순홍
김점용 김정한 김종민 김형국 김환균 김휴선 남기두 문용수
박병선 박순웅 박우정 신낙균 오순심 오주환 육수길 윤재민
이대호 이범수 이상원 이웅재 이종화 이진섭 장두형 장영준
전종철 정태모 조규보 조은국 조정선 최영돈 최영호 한광섭
황윤환 황효성
2023년: 김세일 김용빈 윤호찬 임영규
2024년: 김종국 이상림 2025년: 윤종옥 2029년: 이상근

주소 / 전화번호 변경

편제: 김용남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 16 (신도림동 신도림 대림2차아파트)
김홍배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125번길 11(새터마을 죽전힐스테이트)
백종문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85 (중산동 중산마을11단지아파트)
안택호 서울 서초구 서운로 197(서초동 롯데캐슬클래식아파트)
차재영 서울 성북구 창경궁로35다길 54 (성북동1가, 삼호빌라트)
보도: 조기양 경기 과천시 별양로 180 (부림동 주공아파트)
기술: 하병호 서울 구로구 공원로 47(도림두산베어스타워)
업무: 이범수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35길 25(화곡동)
관리: 김진홍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85 (수내동, 양지마을)
정광조 서울 강남구 삼성로51길 37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
유흥철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73 (삼송동, 삼송2차 아이파크)
특별: 정기정 김포시 풍무로68번길 78 (한화 꿈에그린 더 포레듀 5단지)
대구: 이완수 서울 강동구 고덕로97길 29 (강일동, 강일리버파크9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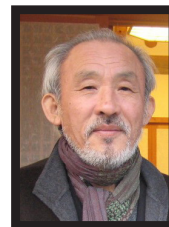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백재인(편제)
3월 15일 별세. 향년 81세.
1969년 TV제작국 미술부 입사. 영상미술국 미술부 근무.
1998년 명예퇴직.



정영기(편제)
3월 30일 별세. 향년 83세.
1969년 보도기술국 입사.
영상미술국 등에서 근무. 1993년 퇴사.



유길춘(편제)
4월 27일 별세. 향년 82세.
1969년 TV제작국 입사.
MBC미술센터 사장, 영화진흥위원장 역임.



노서을(고문)
3월 17일 별세. 향년 100세.
1964년 기술부 입사. 기술국장, 시설관리국장. 삼척MBC 사장 등 역임.



박연식(관리)
4월 3일 별세. 향년 87세.
1969년 총무국 입사.
비상계획부에서 근무. 1994년 정년퇴직.



하재울(업무)
4월 28일 별세. 향년 85세.
1970년 연합광고 부산지사 총무부장. 부산MBC 사업국장 역임.



정태석(관리)
3월 22일 별세. 향년 76세.
1971년 경리부 입사.
건설기획단, 감사국 등 근무. 2004년 정년퇴직.



김태인(편제)
4월 13일 별세. 향년 82세.
1972년 TV 미술부 입사. 영상미술국 등 근무. 1990년 퇴사.



백낙왕(대구)
5월 7일 별세. 향년 85세.
1967년 대구MBC 기술부 입사. 기술관리부장, 안동MBC 기술국장 역임.



이유철(관리)
5월 18일 별세. 향년 78세.
1973년 총무국 입사.
차량부에서 근무. 1998년 명예퇴직.

〈회원수첩〉에 관하여

사우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회원수첩'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만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원들의 연락처가 궁금하신 분은 사무처 전화(02-722-7416)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mbcsau.com>)로 들어가서 『회원정보』를 클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김승월 칼럼

소통에 관하여



김승월
(편제, 이사)

■ 냄새

뜻밖의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 용도로 볼 때 내게 해당이 되지 않는 물건이었다. 방송인 모 씨가 내 정년퇴임식

장에서 준 선물은 '묵'이었다. 왜 이 선물을 했을까. 살펴보고,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봤다. 은은한 묵향이 풍겼다. 서예를 해보라는 걸까. 그냥 자기가 아끼는 뭔가를 준 걸까. 혼자 궁금해하다 지난해 그의 부고를 받았다.

그 이유를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지만 따뜻했던 고인의 마음은 향기처럼 남아있다. 냄새는 그리움으로 남기도 한다. 할머니는 효심이 깊었다고 들었다. 어린 시절 외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분 옷에 얼굴을 비비며 '아버지 냄새가 참 좋다. 참 좋다'며 한참을 우셨단다. 아버지 옷자락에 얼굴을 파묻고 우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보며 다들 얼마나 가슴 찢어졌을까.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이름을 딴 '프루스트 효과'란 '냄새가 과거의 기억을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다'는 이론이다. 뇌에서 후각 기관이 감정과 기억을 관장하는 기관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냄새를 맡으면 과거의 생생한 장면이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쉽게 떠오른다고 한다.

그 예로 과자 굽는 냄새를 맡으면 어린 시절 어떤 모습이 그림처럼 그려지는 현상을 든다. 냄새는 생존을 위한 정보원이기도 하다. 냄새를 맡고 화재나 위험한 장소를 재빠르게 피할 수 있다. 음식이 부패한 것도 쉽게 구별해낸다. 냄새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유전자를 지닌 이성을 본능적으로 찾는다는 설도 있다.

냄새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여러 의미를 전해 줄 수 있으니 냄새를 풍기고 냄새를 맡는다는 것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강신재 姜信載의 소설 '젊은 느티나무'의 첫 구절이다. 사춘기 때 읽은 그 대목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모두가 가난했던 그 시절,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세수비누가 없어서 빨래비누 쪼가리로 세수하기 일쑤였다. 묵

욕은 명절 같은 날에나 하는 특별한 행사. 세수비누의 향긋한 냄새와 물 끼얹고 씻은 정갈한 모습이 상상되어 상큼한 표현으로 여겼다. 없던 시절에 비누 냄새보다 다른 말로 청결하고 향긋한 느낌을 그리 잘 표현 할 수 있었을까.

살아오면서 내가 부린 사치의 하나는 향수다. 예순 전까지 화장품은 애써 쓰지 않았다. 로션이나 스킨을 거의 바르지 않았다. 샴푸도 물을 심하게 오염 시킨다는 생각으로 주저했다.

하지만 향수는 탐냈다. 외국에 출장 갈 때는 면세점 향수 코너를 기웃거렸고 몇 번은 지르기도 했다. 외국인과의 만날 때 한국인 냄새가 어떻다고 할까 봐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 젊은 학생들 가르칠 때 곤대 냄새 가리려 뿌리기도 했다. 향수를 뿌리면서 아쉬움은 '여백이 없음'이다. 부족해야 더 원하듯 풍족함이 오히려 약점이 되기도 한다.

자연의 꽃 향기는 넉넉하지만 한 시절만 즐길 수 있으니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 꽃잎에 코를 파묻게 하는 장미향. 코를 킁킁거리게 하는 라일락 향기, 파도처럼 밀려드는 아카시아 꽃 향내. 모두가 5월이 주는 계절의 선물이다. 향기는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가톨릭 신앙 선조들은 하느님께 향기로운 번제물을 바쳤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도 유향을 예물로 드렸다. 죄 지은 여인은 예수님 머리에 값진 향유를 부었다. 미사 의식에서 향을 사르기도 한다. 향을 살라 향기가 하늘에 오르듯 정성스런 마음을 하늘에 바친다. 하느님은 어떤 향기를 좋아하실까.

우리는 무슨 향기를 지녀야 할까.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코린토 2서 2장 15절) 소통도 향기처럼 하면 좋겠다. 향기처럼 다가가 향기로 남는 소통. 은근하지만 두고두고 기억되는 의미 있는 소통. 그렇게 소통하려는 마음가짐이 '커뮤니케이션의 향기'가 아닐까.

■ 유혹

유혹이 많은 세상이다. 별별 것이 다 생겨나 능력만 있다면 한없이 누릴 수 있다. 그 풍요로운 모습이 온갖 미디어를 통해 세세하게

전해진다. 부자들의 호사스러운 생활이나 스타들의 화려한 모습, 권력자의 막강한 위세. 뉴스로도 퍼지고 상상력이 더해져서 TV드라마나 영화로도 보여진다. 누구라도 다른 세상의 모습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게 된 요즘 세상. 아는 만큼 부질없는 욕망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풍요로워진 만큼 유혹이 흔해졌다. 둘러보면 온갖 유혹이 햇바닥을 날름거린다.

여기저기 죄의 유혹이 손 내밀고 있다.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다. 온갖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저마다 이런저런 미디어를 통해 보고 들은 것이 많다. 말 잘하는 사람 좀 자주 보나. 그 현란한 말솜씨에 감탄하며 그 풍부한 지식에 놀라며 알게 모르게 배운다. 때로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보고 들은 대로 아는 체, 잘난 체하게 된다. 못난 짓 따라 하며 남의 가슴 후벼 파내기도 한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유혹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쉽다. 소통할 때 짓게 되는 잘못이 없는지 한 번쯤 살펴 봐야 하지 않을까.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열(10)가지 새해 다짐'을 발표했다. 교황님의 다짐이라기 보다 모두가 새겨야 할 다짐이다. 하나 같이 마음에 와닿아서 지금도 가끔 되새기곤 한다. 첫 번째는 '뒷담화의 유혹'을 지적한 말씀이다. 남과 오래 말했다 싶을 때 살펴보면 알게 된다. 대부분 험담을 빠뜨리지 않는다. 험담은 본능이다 싶을 정도로 끊기 힘들다. 해서 "뒷담화 하지 않으면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도 하셨나 보다. 뒷담화의 유혹, 대화에서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유혹이다.

두 번째는 '지적질'이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느 분의 기도문 한 귀절이다.

"수다스러워지는 일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특히 기회 있을 때마다 꼭 한마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습관을 버리게 하소서." 나 또한 이런 습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힘들다. 설익은 지식이 과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일일이 아는 대로 다 말하고 싶어진다.

할 말이 없어도 버릇처럼 말하는 경우도 생긴다. 지적질 습관이 배면 자신이 지적했던 입장에 서게 될 때 자신이 내뱉은 말에 찔리게 된다. 지적질은 교만에서 나온다.

말 많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유혹은 '자랑질'이다. 남과 비교하자면 누구나 나은 점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다. 부족한 점 가리고 돋보이는 점만 늘어놓으니 자랑질이다. 페이스 북 활동하다 보면 자주 유혹에 빠져든다. 내가 하는 활동 자체를 알리는 것이 내 역할이며 소명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나서서 활동하는 모습 알려 줄 때마다 조심스럽다. 넉넉한 마음으로 좋게 봐주는 분도 많지만 그리 받아 주기란 쉽지 않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나 역시 남이 마냥 행복해하는 모습에 내 자신을 비교하며 씁쓸해할 때도 있다. 남의 마음 살펴야 자랑질을 피할 수 있다.

'과장의 유혹'도 소홀히 하기 쉽다. 글쓰기를 배울 때 '부사나 형용사를 적게 쓰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부풀려서 쓰지 말라는 뜻인데 말하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말하다 보면 이 말 저 말 덧붙여 그럴듯하게 꾸미기도 한다.

특히 말은 말솜씨에 따라서 달리 전해진다. 빠르고 느리기, 여리고 세기에 따라 느낌이 다르게 들린다. 특정 단어를 힘주어 말하면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같은 말도 감정을 실어 말하면 과장되기 쉽다.

과장이 지나치면 거짓이 된다. 소통에서의 유혹을 애써 피하다 보면 말하기가 겁난다. 느슨하게 말하다 보면 자랑질이 되고 지적질이 되니 조심스럽다.

옛시조 그대로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하지만 해야 할 말 안 하는 것도 살펴야 한다. 말해야 할 사람이 입 다물고 있을 때가 있다. 그 말을 꼭 해야 할 때에 피하기도 한다. '무임승차의 유혹'이다. 남이 애써 치른 희생 대가로 살아가는 비겁함이다.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 보기 힘들다'는 말들을 한다. 다름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워져도 '한 말씀' 할만한 분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돋보인다.

시대의 문제에 적절한 말씀을 용감하게 짚어주시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도 말하지 않는 것도 헛된 유혹이 되지 않나 살펴야 하니 소통 참 어렵다.

〈다시 읽는 그때 이야기〉

‘다리 위험’ 세 차례나 지적했는데...



임정환(보도)

10월 21일 아침 8시. 요란한 뽀뽀소리가 전날 과음으로 돌아온 나를 깨웠다. 회사로 전화를 걸자 “조금 전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얘기와 함께 한강 교량 붕괴위험에 대해 보도했던 세 편의 ‘카메라출동’ 테이프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왔다. 잠이 확 달아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결국 터지고 말았구나”.

‘카메라출동’에서는 지난해(1993년) 12월 19일과 올해 4월 17일, 4월 2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한강 교량이 위험하다고 집중 보도했었다. 발단은 이렇다. 1993년 8월, ‘카메라출동’의 보도거리를 찾던 중 ‘한강 교량 열 군데가 위험하다’.

특히 수중교각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과 ‘이런 사실을 서울시 간부들이 뻔히 알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나 당장 현장취재를 할 수는 없었다.

오염돼있는 한강 물속에 들어가 수중촬영을 하려면 비교적 물이 맑은 겨울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래서 겨울까지 기다렸고 마침내 취재가 시작됐다. 대상은 한남대교를 택했다. 한남대교의 상태가 제일 심각하다는 제보와 실제로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수중교각에 대한 개략적인 확인을 마친 뒤 12월 13일부터 본격적인 수중촬영에 들어갔다. 기온은 뚝 떨어지고 눈보라까지 흩날리는 강 북쪽에 모터보트를 세워놓고 취재는 시작됐다.

수중촬영 나흘째 되던 날, 한 교각 아래로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강 밑바닥과 그 위에 떠 있는 교각 사이에 물고기가 잔뜩 있었다. 물고기가 어찌나 많은지 수중촬영팀이 손으로 계속 빼내도 파인 교각 밑

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 12월 19일 밤 ‘뉴스데스크’의 ‘카메라출동’에서 ‘한남대교가 위험하다’는 보도가 나가자 여러 시청자로부터 ‘한강에 웬 물고기가 그리도 많은냐’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 한남대교 수중교각이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내용이 생생한 화면과 함께 보도된 후 한남대교의 통행량이 줄어들 만큼 시민들은 교량 안전에 회의적이었다.

서울시는 보도 다음 날 “한강 교량 열한 군데가 부실하지만 열한 개 교량 모두(성수대교 포함)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교량이 파여나간 것은 교각 미관 제고를 위해 덧씌운 콘크리트 부분이 손상됐을 뿐 교각 본체는 이상이 없다. 따라서 교량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수중교각에 ‘미관공사’를 했다는 것이 통할 법한 얘기인가.

서울시는 이후에도 ‘시민의 불안을 불식시킨다’는 이유로 담당 국장은 물론 서울시장까지 TV에 출연해 ‘한강 교량 이상 무’를 강조했다. ‘카메라출동’ 보도의 특성은 화면 그 자체로 설명을 대신하는 것이다. 즉 작문이 아니라 ‘기사=화면’이다. 결국 ‘카메라출동’팀은 서울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나아가 한강 교량 열한 곳이 부실하게 된 근본 문제점들을 진단해보는 후속 보도를하기로 결정했다.

후속 보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서울시 한 간부의 서류철에서 교각 본체가 심하게 세굴(洗掘)된 것을 표시한 87년 당시의 설계도면을 발견한 것이다.

이 도면은 수중 교각 본체가 심하게 파여나감에 따라 보강공사를 위해 작성된 것이었다. ‘교각 본체는 이상이 없다’는 이원종 시장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주는 증거였

다. 또 하나는 파여나간 교량에 대한 보수공사의 부실이었다. 서울시는 MBC 보도 이후 네 개 교량에 대해 보수공사를 실시했는데, 특수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할 곳에 모래와 시멘트를 대충 섞어 만든 마대를 수백 개씩 쑤서넣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속을 비워놓은 채 입구만을 마대로 막아놓기도 했다. 이 비리는 금년 4월 17일에 보도됐다. 또 성수대교를 포함한 열한 개 교량이 왜 이렇게 부실하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 보도도 일주일 후 ‘카메라출동’을 통해 방송됐다.

두 차례에 걸친 후속 보도를 전후해서 서울시는 끈질긴 로비활동을 벌였다. 간부들이 매일 보도국을 방문해 사정하는 것으로 부족했던지 집으로 찾아와 밤 12시가 넘도록 집 앞에서 ‘봐달라’며 버텼다. 보도 당일에는 빵과 우유를 싸들고 와서 사무실을 점거한 채 보도를 막고자 했다.

이원종 시장도 찾아와 “허위보고를 받아서 말을 잘못했다”면서 앞으로 교량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시 공업체 임원들까지 동원돼 보도를 막아보려고 그야말로 안간힘을 썼다. 끈질긴 로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출동’은 본래대로 방송됐다.

후속 보도를 위한 취재 과정에서 서울시의 한 간부는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카메라출동’ 보도에 앞서 서울시도 한강 교량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문제를 놓고 서울시 간부들 사이에 의견이 양분됐다.

소장과 중심의 간부들은 ‘이번 기회에 한강 교량 실태에 대해 정확하게 공표해서 비난 받을 것은 받고 예산을 확보해 보수공사를 철저히 하자’라고 했지만 노장과 중심의 고위 간부들은 ‘감찰 것은 끝까지 감춰야 한다. 공개해봤자 비난만 듣고 공연히 시민들만 불안하게 할 뿐’이라고 공표를 반대했다는 것이다.

‘카메라출동’ 보도 이후에도 이같은 서울시의 태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 달 21일 ‘성수대교 붕괴’(이 사고로 버스, 승합차, 승용차 등 차량 6대가 파괴, 침수됐고 사



무너진 성수대교

망 32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를 냈다-편집자 註)라는 대참사를 맞고 말았다.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예견된 참사를 불러온 것이다. 이 사고로 이원종 시장이 물러나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후임으로 임명된 우명규 경북지사는 성수대교 건설 당시 서울시 건설본부장이었다는 사실로 인해 스스로 사직한 것은 앞서 말한 서울시의 은폐 음모와 무관하지 않다.

돌이켜 보면 취재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 당시 교량 취재를 시작하면서 다리 상판에 대한 취재도 했지만 화면 효과와 보도 시간 제한 등의 이유로 보도 내용이 수중 교각 문제에만 치중된 점과 또한 당시 성수대교도 부실 교량 열한 군데에 포함됐었지만 ‘완공된지 15년 밖에 안 됐는데.....’라는 선입견 때문에 취재를 소홀히 했던 점이다. 또 하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아쉬움이다.

검찰 수사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만 초점을 맞추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허위보고, 관리소홀 및 사실 은폐 등에 대한 수사를 한강 교량 전체에 적용해서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 차원의 강력한 징계조치가 수사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한다.

성수대교 참사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조리와 범죄의 과정에서 터진 한 가지 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2의 성수대교 참사를 겪지 않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위험요소를 진단, 제거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1994년 11월호 MBC가이드에 서 옮김)



인터뷰

유튜브 4개 채널을 운영하는 이대호(편제)회원



이 대 호(편제)

▶한꺼번에 네 개의 유튜브를 제작,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계기로 이 일을 하게 됐나요.

저는 1994년에 라디오PD로 입사해서 주로 음악프로그램을 제작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2020년에 명예퇴하고 혼자 제주도에 가서 1년 여를 살았습니다.

제주에 있는 동안 다음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작가들의 공간 brunch에 『제주도에서 혼자 살기』 『돌싱남의 방황기』 등의 글을 200편 넘게 연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같은 카테고리의 글이 열 편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책(e-book)이 한 권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15권 가량의 저서를 가진 작가가 되기도 했구요, 그 중 『제주도에서 혼자 살기』는 'Living alone on JeJu Island'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번역돼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발간했습니다. 올해 2월에 'DH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첫 번째는 '미녀들의 식사(The beauties at dinner)'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yYHP3JKJjPO4dhSr1lut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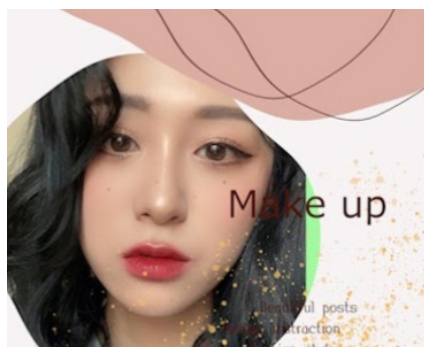
이 채널을 오픈한 이유는, 지상파보다 더 자극적인 소재를 선호하는 인터넷 매체 그리고 인터넷 동영상 웹사이트의 특성상 '미녀'라는 소재가 유튜브에서 매력적인 요소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두 명의 외국 미녀가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을 찾아 맛있게 먹으면서 음식을 설명하는 형식인데요, 저희 DH엔터테인먼트의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방침은 재한在韓 외국인이 출연하고 시청자 타겟은 외국 특히 러시아 쪽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인구는 5천 만명이지만 러시아 언어를 쓰는 인구는 4~5억명을 육박합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러시아어 혹은 영어로 방송을 진행하면 더 넓은 시장에 진출하기 용이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탑 모델의 메이크업(Top Model's Make-up)'입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AT3I6ef3N7GusaUjNdO_Lg



K팝 다음으로 세계인의 각광을 받는 우리의 문화콘텐츠가 바로 '화장'입니다. 이 채널 역시 <러시안 모델+화장>이라는 소재를 결합한 콘텐츠입니다. 세상에 여성들이 존재하는 한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는 영원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장과 관련된 콘텐츠를 두 번째 채널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화장품과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은 구독자들을 위해서 러시아어로 진행을 하면서 한국의 우수 화장품을 소개해줍니다. 모델이면서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유튜버가 직접 메이크업 시연을 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고로 FOOD 그리고 COSMETICS라는 소재는 둘 다 언제나 협찬사가 대기하고 있는 소재라고 판단했고, 이런 이유로 광고나 스폰을 받아 수익을 내기에 좋은 유튜브 콘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소식으로 국내에서 급부상하는 앱 중에서 '포크처럼 꼭 째어 광고를 한다'는 '포크'라는 앱이 있는데, 이 앱에 등록된 메이크업 유튜브 콘텐츠는 올리브영 같은 화장품 쇼핑몰과 연동이 되어서 매

출이 발생할 때마다 자동으로 2%의 수익금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도 케이팝 가수다(I'm a K-POP Singer)'
<https://www.youtube.com/channel/CDM4qTugIDZGcysFadFloFQ>



2019년에 이미 재한 외국인 수는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을 하거나 커플이 되는 젊은 연인들도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도시 서울에 거주하게 될 외국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DH엔터테인먼트에서는 재한 외국인과 음악으로 소통하는 국내 최고 최대의 <2025년 외국인 MUSIC FESTIVAL>을 기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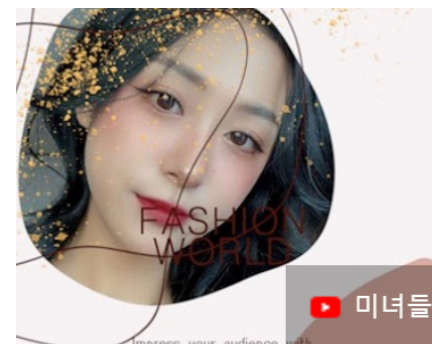
그 사전 단계로 'on line 외국인 song contest'를 시작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거나 혹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부른 노래 영상을 DH엔터테인먼트로 보내 주면 편집을 해서 업로드하고 연말에 가장 우수한 뮤지션을 선발하고 상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물론 선정된 후보 영상에 대해서도 소정의 참가비를 지급합니다.

이런 과정을 3년에 걸쳐 진행한 후 2025년에는 그동안 유튜브 song contest를 통해서 선발된 가수들이 서울에 모여서 함께 공연하고 노래하는 재한외국인 최대의 축제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에는 또 각 대륙별 인기 가수들도 초청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높은 참여를 유도하고, 해외 음악에 관심이 많은 국내인들도 음악을 통해서 외국인들과 소통하는 광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효지HELLEN'
<https://www.youtube.com/channel/UCzakhxUBI6EhF-FgWxldW0w>

효지는 한국인 아버지와 고려인 어머니 사이에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우리 말도 능숙하고 영어와 러시아 말도 능숙한 효지가 서울에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체험담을 V-LOG형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식 다이어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했기 때문에 영상제작 경험이 없을텐데 녹화, 편집 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처음엔 제가 영상제작을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창의적인 기획이나 비즈니스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작은 촬영이나 편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획과 제작이 분리돼있으면 기획의도와 제작된 콘텐츠가 서로 다른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좀 힘듭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나도 케이팝 가수다'에서 현재는 K-POP을 부르는 외국인들의 영상만 소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50만 재한 외국인들의 모국에서 유명한 가수들의 노래를 외국인들이 부르는 영상도 같이 소개할 생각이구요, 또 그 원곡 가수를 초청해서 공연을 벌이는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재한 외국인들이 자기들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랑 향수 같은 걸 갖게 되겠죠.

또한 지금처럼 4개의 채널을 계속 끌고 가는 일이 결코 성공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연말쯤 '선택과 집중'을 통해 2개 정도로 줄여서 운영할까 생각 중입니다. 저의 예상과 시장市場의 선택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더라고요.

사우회 선배님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도움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대담 편집장)

〈그시절 이야기〉



안택호(편제)

▶스포츠 채널을 '무조건' 만들어라

1999년 여름, 교양제작국에서 위성방송추진팀으로 옮겼다. 이 팀은 케이블/위성 채널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조직으로 나는 스포츠 채널 담당이었다. 1990~1992년 미국에서 케이블/방송 경영 석사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 스포츠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스포츠국 제작PD로 전입을 시도했던 적도 있어서 흔쾌히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자세한 시장 조사를 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스포츠 채널의 채산성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MBC 단독 스포츠 채널 대신 ESPN채널과의 joint-venture 채널 가능성을 회사에 건의했다. 또한 나중에 어려워질 경우에도 최소한의 매몰비용으로 시장 철수가 가능하도록 자체 중계차 없이 채널을 운용하고, 외부 투자 파트너를 구해서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사업계획도 세웠다.

투자 섭외 대상은 위성방송을 준비하는 채널 사업자(KT, 또는 데이콤)였는데 최종적으로 MBC가 KT의 위성 플랫폼인 Skylife에, KT는 MBC-ESPN에 교차출자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KT를 투자 파트너로 영입했다.

스포츠 채널 설립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했는데 그중 하나는 임원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평소 지상파 우위 마인드를 갖고 계신 임원들은 케이블 업계의 여러 산업 관행에 대해 이해가 부족해서 그분들에게 케이블 산업에 대해 이해시키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던 기억이 난다.

▶박찬호가 출전하는 MLB 4년 독점계약 비화

스포츠 채널에서 MLB경기는 채널의 성패를 좌우하는 킬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ESS는 아시아 시장에서 MLB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판권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국내에 생소한 ESS의 해외 콘텐츠만으로는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나는 박찬호가 출전하는 MLB를 확보하면 MBC

의 스포츠 케이블이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2000년 5월 경부터 MLB와 협상을 시작했다. 당시 지상파 3사의 스포츠국 직원들은 시드니 올림픽 준비에 정신이 없었고 9월에는 대부분의 인원이 호주에 가 있었다. 나와 이상민 부장은 이 시점에 우리가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면 조기 타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쟁사도 없고 주무부서인 스포츠국측 직원들도 신경을 쓸 수 없는 시기에 호랑이굴인 MLB 본부가 있는 뉴욕으로 향했다.

MBC-ESPN채널 joint-venture 협상 때부터 자문을 해 준 법무법인 세종의 이찬형 미국 변호사와 함께 뉴욕 MLB사무실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한국 시장을 잘 아는 MLB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방송권 가격도 중요했지만 MLB는 장기적으로 자신들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기의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노출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상파에서 주 1회 이상 전 경기 노출과 케이블에서는 매일 한 경기 이상의 노출(중계)과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90% 이상에게 도달해야 하는 조건 등을 제시했다. 노출 조건을 조율하고 한국의 편성 상황에서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요구조건에 대해 설명하는데 내가 편성 출신인 것이 큰 도움이 됐다. 뉴욕에서 가계약을 맺고 11월 7일 서울에서 MLBI 폴 비스틴 사장과 4년 독점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싱가폴 ESPN-STAR SPORTS(이하 ESS)와의 협상 과정

당초 미국의 ESPN과 직접 조인트 벤처 협상을 하고 싶었으나 당시 ESPN의 아시아 시장 방송권은 싱가포르에 본부가 있는 ESPN-STAR SPORTS가 갖고 있었다. 이 채널은 미국의 ESPN과 루퍼트 머독의 STAR채널이 불필요한 방송권 가격경쟁을 피하면서 아시아 스포츠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투자지분을 50:50으로 정확하게 반분해서 설립한 채널이었다.

한 회사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CEO도 각 회사에서 2년씩 교대로 맡는 시스템이었다. MBC와의 협상 당시 CEO는 STAR 채널 출

신인 호주인 Jack Dorby였다. 그들은 한국의 사업 파트너를 결정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했다. 사업 파트너 후보사들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와 한국의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한국에서 고용한 컨설턴트들을 통해 검증했다. 당시 ESS와 스포츠 채널을 설립하려고 접촉했던 후보사들은 C&M, MBC, 데이콤 외에도 몇 개사가 더 있었다. ESS와의 협상 테이블에 MBC는 제일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MBC는 ESS의 한국 사업 파트너 후보 순위에서 꼴찌였다는 사실은 최종 계약이 성사된 뒤에 ESS의 컨설턴트였던 윤원일 이사가 후일담으로 들려 주어 알게 됐다.

▶MLB 위성 수신계약을 주주인 KT가 아닌 데이콤과 맺게된 사연

MBC-ESPN의 주주는 MBC, ESS, KT였다. 그런데 2001년 채널이 출범하고 방송을 시작할 때 박찬호가 출전하는 MLB 위성수신을 KT의 경쟁사인 데이콤과 계약을 했다. 정말 이번이었던 내막은 이렇다. 매일 최소한 MLB 한 경기를 미국으로부터 위성수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성수신 비용은 엄청났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KT, Dacom 두 회사를 입찰 경쟁시켰는데, 데이콤이 KT보다 86% 저렴한 가격으로 응찰을 해왔고 당연히 데이콤이 사업자로 선정됐던 것이다.

KT위성사업본부의 자사의 위성지구국과 MBC 주조정실 사이에 전용망을 갖고 있기에 당연히 MBC-ESPN이 자기들과 계약하리라고 믿었던 것 같았다. 또한 KT의 조직이 방대해서 출자를 담당한 기획부서와 위성사업본부와의 의사소통 부재에서 발생한 결과였다. 나중에 KT에서 항의를 해왔지만 채널회사의 수익성이 중요하기에 또 다른 주주사인 ESS를 내세워 KT의 항의를 무마시켰다.

▶MBC-ESPN의 주거래 은행이 기업은행이 아니고 한미은행이 된 까닭
채널 출범 후 ESS에 방송권료를 송금해야 하는데 꽤 큰 금액이었다. 송금수수료를 줄여보려고 기업은행 MBC지점, 경영센타 1층에 있던 한미은행, 그리고 대우

증권에 있던 제일은행 외환 담당자를 사무실로 불렀다. 회사의 1년 송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뒤 오전 10시까지 공개 입찰을 통해 최저요율을 제시하는 은행과 외화송금계약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은행 담당자는 이해를 못하는 분위기였다. 제일은행은 나의 고교 선배를 통해 로비를 해왔다, 한미은행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입찰 개봉 결과 한미은행의 조건이 제일 좋았다. 바로 한미은행과 주거래 은행 계약을 맺었다. 경쟁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독점중계권 확보

2000년 10월 13일 MBC 뉴스 데스크 첫 꼭지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이었다. 그런데 뉴스 말미에 “12월 10일 노벨평화상 시상식 중계는 노르웨이 오슬로 현지에서 〈MBC가 독점중계〉” 한다는 내용이 나왔다.(나중에 청와대가 중재해서 KBS와 SBS도 중계를 했지만 〈영상 MBC 제공〉 자막을 삽입해야 했다) 그 속사정은 이렇다.

스포츠 채널을 준비 중이던 2000년 초 스포츠국 오창식 선배로부터 얻은 영국 스포츠 전문 프로덕션 Otagon사의 프로그램 브로셔에는 ‘노벨평화상 중계권을 판매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때마침 2000년 초부터 DJ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이 거론됐다. 나는 DJ의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이 80%는 된다고 믿고 다음 날 옥타곤의 한국지사장인 박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 ‘올해 노벨평화상 독점중계권을 MBC가 미화 1만달러에 구매하겠다’는 구두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당시 해외판권 구입부서인 영화부를 통해 정식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그해 말 ‘MLB 독점계약과 노벨평화상 중계권 확보’로 창사기념일에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잘 나가는 회사의 바람을 타고 능력이 부족한 나도 그때 걸다리로 바람을 탄 것이 아닌가 싶다.

항상 나의 젊은 시절을 화려하게 만들어 주고 꿈을 이루게 만들어 준 MBC가 고맙고 자랑스럽다.

삼가 노서를 선배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 흥 복(기술)

노서를 선배님은 1923년생으로 올해 100세가 되었습니다. 함경남도 원산이 고향이며, 열네 살 때 일본 '나가노中野高等무선전신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 원산 지방체신국에서 근무하다가 6.25를 만나 피난지 부산에서 경상도 색시와 결혼하여 슬하에 두 형제를 두었습니다.

서울로 옮겨서는 통신장비제작회사인 (주)삼방에서 일하다가 1964년 라디오송신소(시흥) 소장으로서 MBC와 인연을 맺었고, 이후 라디오기술국, 기술관리국 등에서 일하다가 시설국장을 하고 있던 1980년 삼척MBC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북녘에 있는 고향 원산에서 그나마 가까운 곳이라고 좋아하셨습니다.

삼척MBC를 퇴직한 후에는 (주)문화음향을 설립해서 방송사의 야외음향제작업무를 했으며 그 무렵 '문화방송 기술인동우회'와 '문화방송 사우회' 창립을 주도하여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했던 사우들 특히 기술인들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데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제가 1968년 MBC에 입사하면서 맺게 된 노 선배님과 인연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어졌고, 가신지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저는 선배님께서 아직 요양원에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한 '함경도 아바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은 정성과 사랑으로 언제나 후배들을 격려하고 다독이던 모습은 제 의식 속에 오래 남아있을 것입니다.

선배님은 특히 낚시를 좋아하셨습니다. 1975년 경 MBC 사원들 사이에서 친목낚시가 성황을 이룬 적이 있었는데 당시 낚시동호회장이던 노 선배님의 전화 한 통에 이 부서 저 부서의 낚시광들이 보내온 선물이 기술관리국 책상 위에 수북히 쌓였고, 우

리는 거기에 '붕어 1등상, 2등상, 피라미상' 등의 쪽지를 쓰느라 바빴습니다. 어느 해 방송 컬러화 계획으로 일본 출장을 가는데 선배님께서 "바다낚시대"를 사다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불일을 마치고 낚시점을 찾아 낚시대를 구입했는데 접이식이 아니고 긴 낚시대라 세관 검색대 통과가 은근히 걱정이 됐었죠. 당시 김포공항 출구는 네 군데였고 그날따라 여행객이 많아서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일로 내가 서있던 줄의 절반을 뚝 잘라서 '옆문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방과 긴 낚시대를 들고 재빨리 나왔죠. 다음 날 선배님께 낚시대를 드렸더니 어린애처럼 좋아하시고 점심식사 함께 억지로 봉투를 주머니에 찔러주시며 "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하며 웃으셨습니다.

노 선배님은 유달리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관리에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별세하시기 5년 전부터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면서 심신의 허탈감을 많이 느끼셨고, 후배들에게 그런 티를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시던 모습이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사우회에 자주 가서서 장기, 바둑을 두셨고 제일 즐기셨던 것은 '고



어느 야외 행사에서

스톱'이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으시면 나이는 접어버리고 어린 후배들과 어울려 윗트있는 말씀과 모션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도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몇 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댁에서 사우회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도 선배님이 원하는 날이면 언제라도 휠체어를 밀어주시던 김세중, 백하현, 박종완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고향에 가기 전에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노라'고 하시던 선배님, 지금쯤 원산 하늘에서 유유자적하고 계시겠지요. 사랑합니다.

〈노서를 고문님께서서는 3월 14일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으셔서 3월 17일 새벽 심장지로 별세하셨습니다. 유족은 벽제 해인사 미타원입니다. 편집장〉



바둑을 좋아하셨던 노 선배님



세상 그 무엇도
신뢰와 바꿀 수 없기에
NS가 가장 듣고 싶은 한마디

당신을 신뢰합니다

NS NS홈쇼핑